

# Hybrid

## Creating New Worth

### 하이브리드, 새로운 가치 창조 트렌드

‘하이브리드(Hybrid)’란 단어가 사회 전반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다. 자동차, 휴대전화에서부터 카메라, 자전거, 문화와 예술, 패션, 정치와 사회에 이르기까지 영역과 장르에 구분 없이 파고들어 또 다른 새로운 영역을 구축하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이종(異種) 간의 결합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내는 코드인 ‘하이브리드’ 속으로 들어가 본다.

#### 하이브리드, ‘잡종’의 편견을 뛰어넘다

‘하이브리드’는 사전적으로 ‘동식물의 잡종(雜種)’을 뜻한다. 사자와 호랑이 사이에 태어난 라이거(Liger)나 타이곤(Tigon), 줄기에는 토마토가 열리고 뿌리에는 감자가 만들어지는 포마토(Pomato) 등이 이에 속한다. 즉 결합을 통한 새로운 종의 탄생이다.

최근 ‘하이브리드’라는 용어가 산업, 과학, 예술, 사회, 정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뜻도 단순한 동식물의 교배에 의한 잡종 만들기에서 벗어나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이나 역할이 하나로 합쳐져 새로운 사물이 창조되는 것으로 확대됐다.

하이브리드의 원조는 1867년 가난한 화가 지망생이었던 미국의 하이멘 리프먼(Hymen Lipman)이 만든 ‘지우개 달린 연필’이라 할 수 있다. 지우개 달린 연필은 연필과 지우개라는 전혀 다른 상품이 하나로 결합돼 탄생한 새로운 제품이다.

휴대전화와 카메라의 결합도 하이브리드다. 전화기와 카메라라는 서로 다른 제품의 기능을 한데 묶어 휴대전화라는 새로운 기능성 상품으로 탄생했기 때문이다. 스마트폰도 전화기와 컴퓨터가 결합한 하이브리드 제품이다. 하이브리드는 이렇듯 다른 기능이 결합해 새로운 사물로 재창조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면에서 하이브리드는 여러 기능이나 성능이 하나로 융합되거나 합쳐지는 ‘컨버전스(Convergence)’와도 비슷한 개념이다. 음식이나 음악에서는 이를 퓨전(Fusion)이라고 부른다. 이종 결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것은 모두 하이브리드다.

#### 두 개의 심장으로 달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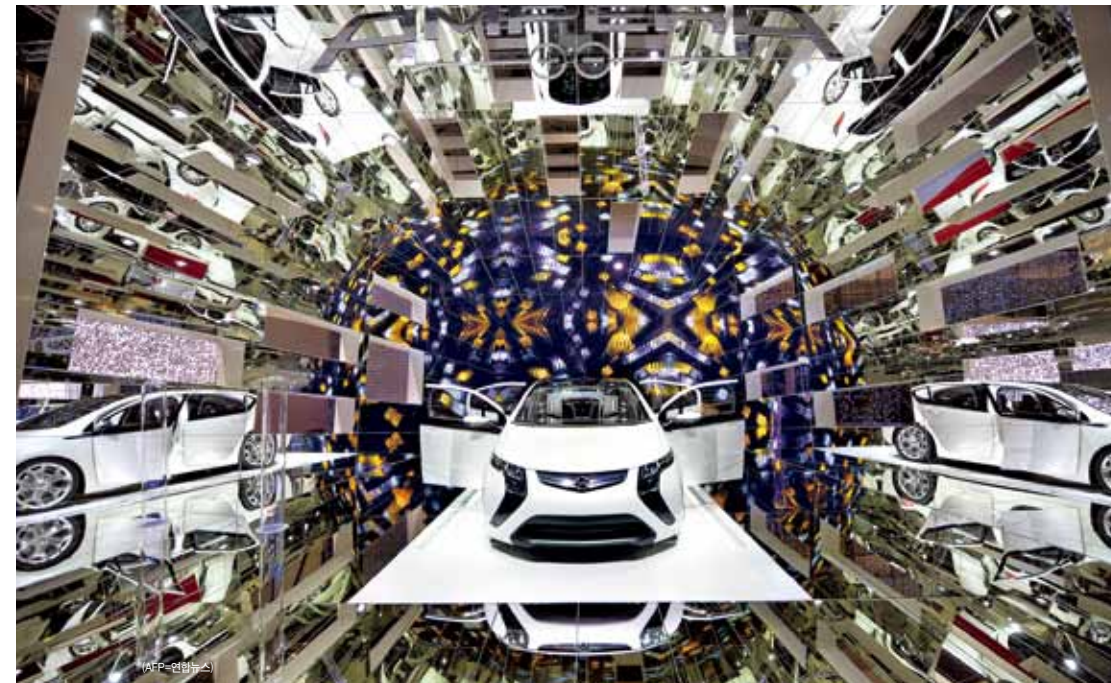
가장 대표적인 하이브리드 적용 분야는 자동차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내연 엔진과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엔진을 함께 장착해 기존 일반 차량에 비해 연비는 높고 유해가스 배출량은 줄인 차세대 모델을 말한다. 최근 기름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연비가 뛰어난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날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유해가스 배출량을 기존 차량보다 최대 90% 이상 줄일 수 있고, 기름 사용량이 적기 때문에 도시의 공기를 개선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환경자동차(Eco-car)’로도 부르는 이유이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엔진과 모터를 겸용해 가장 효율적으로 운전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저속일 때는 모터로만 구동하고, 가속 페달을 밟으면 내연 엔진이 에너지를 보태면서 더욱 강한 힘을 낸다. 동시에 전기 에너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기름을 절약할 수 있다. 또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배터리에 전기에너지를 재생시켜 준다. 또한 일정 시간 이상을 신호등 앞에서 대기하면 엔진이 꺼져 공회전으로 인한 에너지를 절감시켜 주기도 한다. 모터의 개입을 통해 필요 없이 낭비되는 기름을 절감시켜 주는 것이다. 그러나 급출발, 급가속, 급정지를 반복적으로 하면 운전 중 전기 모터는 개입할 수 없다.

올해 1월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2012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메르세데스-벤츠, BMW, 포드, 도요타 등 주요 자동차 업체들은 경쟁적으로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선보였다. 한때 이목이 집중됐던 순수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쇠퇴하고, 트렌드를 반영해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공략 모델로 등장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연비가 높고 유해가스 배출량이 적다. 내연 엔진과 배터리 엔진을 함께 장착했기 때문이다. 기름값은 줄이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어 차세대 자동차로 관심을 끌고 있다. 세계의 주요 자동차 업체들은 경쟁적으로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선보이며 소비자들을 공략하고 있다.



■ ‘하이브리드’란 수식어가 붙은 제품은 서로 다른 사물을 결합해 새롭게 제작된 것으로 기존의 단점을 보완하고 편의를 높인 것들이 많다. ■

## MTB와 로드바이크의 결합

하이브리드 자전거는 험한 산길에 최적화된 산악용 자전거(MTB)와 포장도로에 적합한 속도 위주의 로드바이크(Road Bike)의 특성과 장점을 적절하게 섞어 놓은 제품을 말한다. 평소에는 자전거로 출퇴근하고 휴일에는 여행이나 레저 생활을 즐기는 사람에게 적합하다.

하이브리드 자전거는 두 개의 자전거를 합친 형태이기 때문에 서스펜션과 디스크 브레이크 등을 갖춘 MTB형과 장시간 주행에서 피로감을 줄일 수 있도록 로드바이크 형태에 핸들만 일자인 로드바이크형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또 일반적으로 프레임은 안정성을 위해 MTB에 가깝게 제작돼 있고, 타이어 폭은 MTB와 로드바이크의 중간 정도인 것이 특징이다.

자전거를 탔을 때의 느낌과 안정성을 위주로 한다면 MTB형을, 빠른 속도를 원한다면 로드바이크형을 선택하면 된다. 물론 두 가지 기능을 결합했기 때문에 MTB처럼 산에 오르기에는 무리가 따르고, 로드바이크의 속도는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이 단점이다.

이와는 별개로 자전거에 전기 모터를 달아 일반 도로에서는 페달을 밟아 바퀴를 굴리고 오르막에서는 모터를 이용해 편하게 오를 수 있는 전기자전거도 있다. 오르막이 많은 도로에서 유용한 자전거이다.



## 카메라, 무게는 줄이고 성능은 높이고

얼마 전까지 DSLR이 붐을 이루더니 최근에는 하이브리드 카메라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 사진 기자나 전문 사진가가 사용하는 DSLR이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무겁고 기능은 복잡하며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실제 DSLR의 기능을 모두 사용하며 사진을 찍는 사람도 드물고, 특히 장거리 여행이나 산행에서는 무겁고 크기도 커서 이동할 때 힘이 든다.

하이브리드 카메라는 이런 단점을 보완한 새로운 기종이다. 흔히 ‘미러리스(Mirrorless) 카메라’라고 불리는데 하이브리드 카메라에는 DSLR에는 필수적인 미러와 펜타프리즘(Pentaprism), 뷰파인더(Viewfinder)가 없다. 이런 부속들이 없어지고 이미지 센서를 사용하면서 하이브리드 카메라는 DSLR에 비해 크기가 작아지고 무게가 줄었으며, 셔터 소리도 작아졌다. 물론 일반 디지털 카메라보다 화질은 우수하고, 아웃포커싱 촬영도 가능하다.

그러나 액정 화면을 보고 촬영해야 하기 때문에 밝은 곳에서 찍을 때 불편하고, DSLR과의 렌즈 호환성도 떨어진다. 또 AF(자동 초점) 속도가 DSLR보다 느리다는 단점도 있다. 기술의 진보가 빨라 이런 단점은 빠른 시간에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3월 12일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클래식 연주자들은 한국, 일본, 인도 등 각국의 전통 악기 연주자들과 함께 하이브리드 공연을 선보였다.

## 예술의 경계 허무는 하이브리드 공연

하이브리드는 무대 예술계에도 바람을 일으키며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있다. 2000년대에 예술 장르 간 연합을 뜻하는 ‘퓨전’이 등장했다면 지금은 ‘하이브리드’가 대세이다.

예를 들어 뮤지컬과 오페라가 한 무대에서 펼쳐지는가 하면 뮤지컬 무대에 판소리와 록, 발라드가 함께 나오기도 한다. 또 국악 연주 단체와 연극 배우가 창작극을 만들고, 피아니스트와 미술 작품 해설자가 함께 무대를 꾸미기도 한다. 서로 다른 장르나 악기가 합쳐져 새로운 형식의 예술로 탄생하고 있다.

지난 2월과 3월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아르츠 콘서트’에서는 피아니스트, 소프라노, 발레단 등 각 장르별 음악가들이 한 무대에 올랐다. 2월 공연에서 미술해설가 윤운중 씨는 ‘콘서트 마스터’로 등장해 화가 앙리 레흐만이 화폭에 담은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프란츠 리스트의 그림을 설명했고, 피아니스트 윤홍천은 리스트의 ‘페트라르카 소네트 제104번’을 연주했다. 또 3월 공연에서는 ‘피아노의 시인’ 쇼팽의 아름다운 음악과 쇼팽의 친구로 그의 내면을 깊이 이해했던 낭만주의 화가 들라크루아의 작품이 한 무대에서 선보였다. 이들 공연은 관객에게 미술 작품과 음악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

또 3월 12일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실크로드 앙상블’에서는 첼리스트 요요마(友友馬)를 비롯해 클래식 연주자들이 한국, 일본, 인도 등 각국의 전통 악기 연주자들과 함께 협연했다.

‘하이브리드 오페라’라는 부제를 달고 2월 초 관객과 만난 오페라 ‘헨젤과 그레텔’은 오페라에 샌드 애니메이션 장르가 결합된 무대를 선보였고, 뮤지컬 ‘서편제’는 판소리를 비롯해 록, 발라드 등 다양한 음악의 감동을 뮤지컬 무대에서 동시에 느낄 수 있도록 했다.

드라마의 감동과 재미를 교육과 결합시킨 ‘에듀라마(Educational Drama)’ 공연들도 속속 선보이고 있다. Y